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IBKS Economy Monitor

Focus on Week: 금리 인하 필요성을 더 확인시켜 준 한은 수정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은 소폭 상향 조정되었지만 부문별 온도차는 더 확대되었고 대외 여건 변화에 더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짐

한국은행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되었다.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11월 1.8%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고 같은 날 개최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 금리는 동결되었다. 같이 발표된 한은 점도표를 토대로 보면 향후 금리 동결 기조는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한은 수정 경제 전망은 오히려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재개 필요성을 더 확인시켜 주었다는 판단이고 이번에 만장일치로 동결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향후 통화정책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판단이다.

성장률 전망은 소폭 상향 조정되었지만 부문별 온도차는 더 확대되었고 대외 여건 변화에 더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장률 반등 모멘텀이 길게 유지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물가 전망은 지난해 2.1%보다 높아진 2.2%지만 취업자수 전망은 지난해 19만 명 증가보다 줄어든 17만 명 증가에 그친다는 것은 정책결정의 어려움을 반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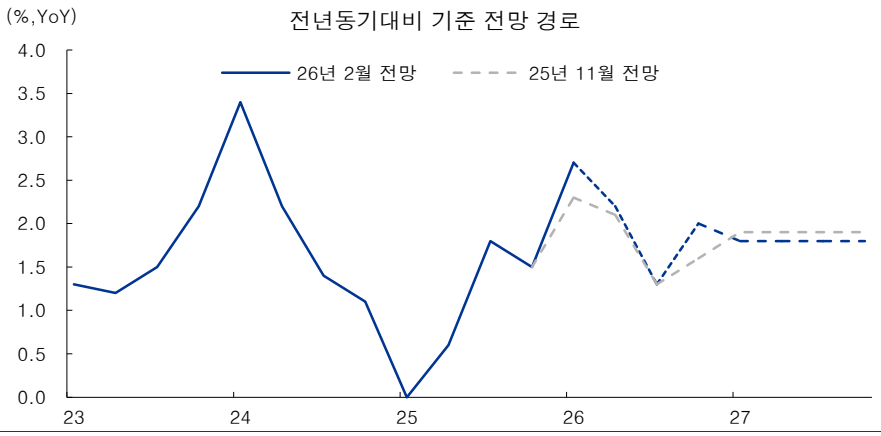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출 부문별 성장률 조정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 기여는 0.3%pt로 경제성장률 조정치 0.2%pt보다 더 높다. 요인별 기여를 보면 반도체 경기 호조가 0.2%pt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이번 2월 성장 전망 상향은 거의 전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확한 상향 조정 요인이지만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대외 여건 변화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처럼 AI투자에 대한 과잉 우려나 이로 인한 신용위험 우려 등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하반기 미국 중간 선거 등 여러 불확실성이 대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후 대외경기 흐름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 유동적인 흐름을 완충시켜주기 위해서는 내수 부문의 견조함이 필요한데 이번 수정 전망을 보면 우리 통화 당국도 이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소비 기여는 제자리를 보이고 있고 투자 기여는 후퇴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 기여 후퇴가 주의를 환기시킨다. 성장전망 수정에 대한 설비투자 기여는 지난 11월 0.1%pt에서 이번 2월에는 0.05pt로 떨어졌고 우리 성장률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인 건설투자는 지난 11월 -0.15pt에서 이번 2월에는 -0.2pt로 확대되었다.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률 상향 효과를 건설투자 부진이 그대로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투자의 후퇴는 당연히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 취업자수 전망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이유다. 당연히 이런 구용 여건의 악화는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소비 기여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소비가 기여하는 부분은 0.05%pt에서 멈춰 있다. 당연히 정책적 자극이 필요한 부분이다.

Economist
정 용 택
02) 6915-5701
ytjeong0815@ibks.com

김 예 슬
02)6915-5526
chchu93@ib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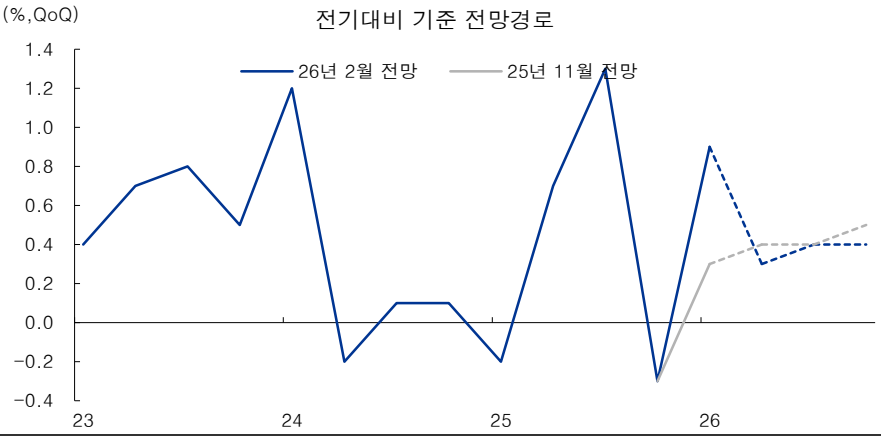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 1.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1.8%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2027년 전망은 0.1%pt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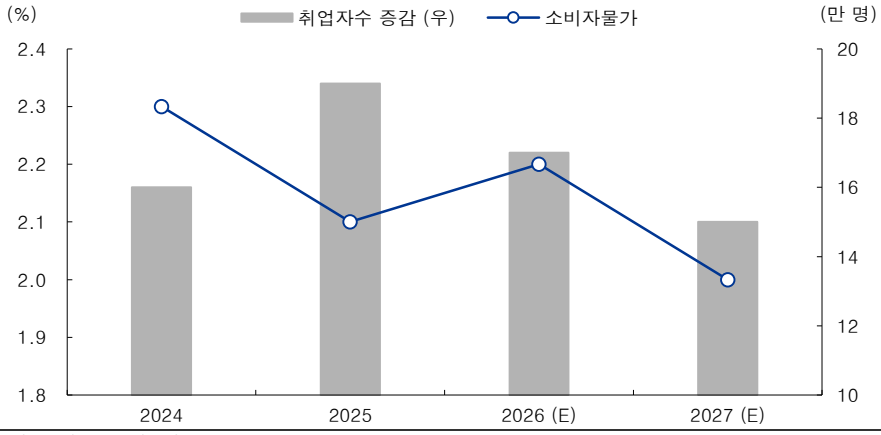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2.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성장률 크게 상향 조정된 것이 크게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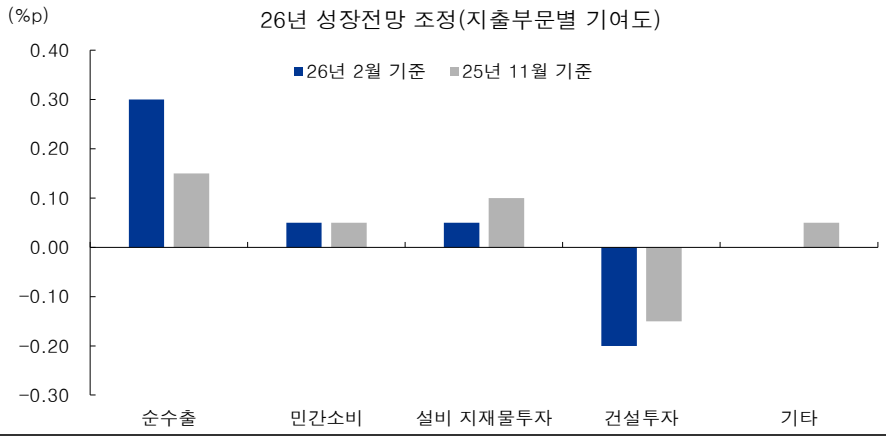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3. 2026년 물가는 상승한 반면 취업자수 증가는 둔화 전망 ➡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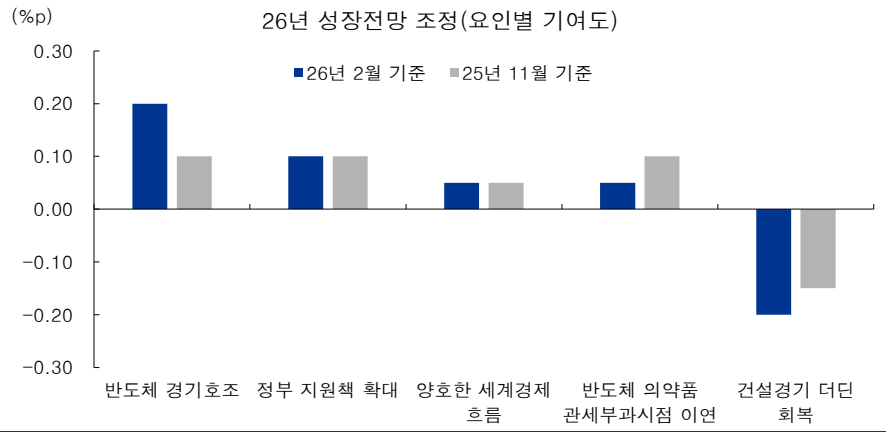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4. 수출과 내수의 온도차가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출 부문별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5.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률 상향 효과를 건설투자 부진이 그대로 희석시키고 있는 모습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